



광주 문학으로 가는 길 '금남로 가는 길'

매년 일간지 신년호에는 신춘문예를 통과한 주인공들과 작품들이 지면을 장식한다. 신춘문예를 '등단'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게다. 수많은 문장들이 신춘문예 열병을 앞고 그 고개를 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다.

그러나 그 어려운 관문을 뚫어도 기쁨은 잠시 뿐이다. '신인 작가'라는 칭호만 주어졌을 뿐,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다. 글을 발표할 지면이나 기회가 생각만큼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로 18호를 맞는 '금남로 가는 길'(전일출판사) 출간은 뜻 깊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문인들의 모임 '광주일보 신춘문학회'(이하 광일문학회·회장 채희운)가 자신들의 작품으로 만든 동인지가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이다.

갈수록 문학의 지위가 약화되고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는 상황에서 신춘문예 출신들이 동인지를 만들고 18년을 이끌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문학을 향한 열정은 그만큼 깊고

강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번 작품집에는 제10회 광일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김현주(53) 씨의 소설 '행간'과 심사평, 수상 소감 등이 실렸다.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길'이 없는 길을 향하여'로 데뷔한 김 작가는 "광일문학상을 계기로 다시 책상머리에 앉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채희운·윤삼현·고재중 심사위원들은 "무엇보다 안정된 구도와 인물들의 독특함이 개성적 진술을 통해 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며 "자신의 소설을 실험하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탐

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작품집에는 소설(6편), 시(21편), 동시(9편), 동화(6편), 콩트(1편) 등 모두 43편이 실렸다. 소설 부문에는 나정미, 박이수, 이은유, 주원규, 차노휘, 홍광석 씨의 작품이 수록됐고 시 부문에는 노창수, 박록담, 박승자, 배세복, 정도전, 정려성, 최약숙 시인의 작품이 실렸다.

동시 부문에는 손동연, 송재진, 이준섭 시인과 동화 부문에는 김목, 김옥애, 박소영, 박찬삼, 윤삼현, 정혜진 작가의 작품이 수록됐다. 콩트 부문에는 유

일하게 최건 작가의 원고가 작품집에 묶였다.

또한 지난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신입회원이 된 박이수(소설 부문), 배세복(시 부문), 서귀옥(동화 부문)씨의 수상작 '컨테이너', '몬드리안의 담요', '태권브이를 부탁해'와 심사평, 수상소감도 실렸다.

채희운 광일문학회 회장은 "창작이라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연히 만났던 광주일보신춘문학회가 우리들의 자금이 되고, 우리들의 반석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 있었을 것"이라며 발간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18번째 동인지 출간

광일문학상 수상 김현주씨 소설 등 시·콩트 43편



차노휘



정혜진



김옥애



배세복



박승자



윤삼현

"삭발은 작품 향한 열정의 작은 조각"

극단 까치놀 30년 기념 '그것은 목탁...' 배우들 증심사서 삭발식



삭발식에 참여한 까치놀 배우 강원미씨.

지난 23일 무등산 자락 증심사에서 경건한 삭발식이 열렸다. 주지 연광스님이 진행한 삭발식에 참여한 이들은 극단 까치놀의 배우들이었다.

올해 창단 30년을 맞는 까치놀은 기념작으로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무대에 올린다.

이만희 작가가 희곡을 쓴 이 연극은 주인공인 조각가 출신 도법 스님의 견성(見性) 과정을 통해 인간의 고뇌와 예술의 본질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삭발식에는 도법 스님 역을 맡은 이영민 극단 대표를 비롯해 고길용·심성일·강원미·국근섭씨 등 출연진 5명이 참여했다. 특히 여배우인 강원미씨의 경우 시대의 반대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믿음으로 삭발을 감행, 눈길을 끌었다.

"주변에서 굳이 삭발을 할 것까지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어려운 결심이기는 했습니다. 특히 여자인 원미씨가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극단 30주년을 맞아 무언가 마음을 합치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모든 연극인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작품을 제대로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서울과 경기, 경상도 지역에서는 많이 공연됐지

만 호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첫선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영민 대표는 "좋은 작품을 올리기 위한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배우들이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교감하기 위해 삭발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1990년 초연 당시 서울연극제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등을 휩쓸며 정통 리얼리즘 공연의 진수라는 평을 받았고 연극인들에게 교과서 같은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작품은 도법 스님의 철학적 성찰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스님들의 일상과 번뇌를 진솔하게 그려낸다. 또 유머와 해학적 정치를 통해 불도(佛道)의 기본 이치를 쉽게 풀어냈다.

극단 상임 연출가 김영록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노름마치 김주홍이 특별 출연한다.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극단 까치놀 창단 30주년 기념작, BBS광주불교방송 개국 20주년 기념작으로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만 15세 이상 관람가.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웃 사랑 있는 곳에...

통기타 가수 김전경, 공연 수익금 70만원 기부

지난 23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는 이웃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음악회가 열렸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통기타 가수 김전경씨는 '김전경의 음악이 있는 곳'에 공연을 앞두고 무대 앞에 쌀 모금함을 설치했다. 화환이나 꽃다발 대신 관객들이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 관객들은 김씨와 초대가수로 참여한 선장배, 하성관씨가 '젊음', '허무한 사랑' 등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모금함에 기부금을 넣었다.

김씨는 공연 중 모인 기부금 70만원 전액을

유·스퀘어문화관에 기부했으며 문화관은 쌀을 구입,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씨는 "내 목소리, 내 음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도 뜻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관객들께서 모아주시는 기부금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전경음악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광주 KBC의 '출발 새아침'(음지탈출), '생생 TV'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 자작곡을 모은 2집 '젊음'을 발표했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매월 지역 명소·음식 영상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이 지역 명소, 음식, 문화 등을 소개하는 광주지방영상공모전 '오진필'을 진행한다.

재단에서 처음 진행하는 시민참여 '오진필' 공모전은 광주 곳곳의 자랑거리를 찾아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 매월 공모를 통해 광주홍보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작품의 규격은 15초 내외의 장정영상으로 제한하며 스마트폰 영상도 참여 가능하다.

응모작들은 심사를 거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스앤빈 문화전당점, 엔제리너스 증장로점, 건강한 밥상 오늘 등에서 할인이 가능한 아리랑지키카드를 제공한다. 문의 062-670-7423. /오광록기자 kroh@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5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한 '2015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 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 인사를 두루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으로서 자세한 인물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기획인물편에서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4천여 명의 명단(상권 수록)과 프로필(하권 수록)을 한 책으로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록 인사와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인터넷과 관련 문헌도 꼼꼼히 참조해 보완했습니다.

2015년판은 지난해에 비해 3천여 명을 추가했으며, 수록인물도 상당수 바뀌어 최신 인물 소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국배판·상권 1천 244쪽 / 하권 1천 612쪽
■ 가격 : 18만원



국민신문사 | 서울 02-398-3991~3 | 경기 031-238-2222 | 인천 032-427-1236 | 대전 042-521-9705 | 광주 062-264-5777
부산 051-225-9035 | 대구 053-242-7652 | 강원 033-281-0010 | 울산 051-441-7400 | 대구 053-355-3800

